8-11-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시편 49:1-20
말씀제목:**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자신이 하시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 높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모두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느 누구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몸 값을 바쳐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어떤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어떤 사람이 그들을 위해 몸 값을 바쳐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들 그들이 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며 오직 몸 값을 바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 전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에 온 몸이 욕창으로 벌레들이 자신의 몸을 먹고 있는 고통 가운데 그는 자신의 혼을 구속하실 분께서 훗 날에 땅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고 훗 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앎이라."**(욥 19:23-25)

그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먼 미래에 자신의 혼을 구속하여 자신의 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 왕도 자신의 혼이 죄의 몸에 붙어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혼을 구원하여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 받기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시 119:25)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그들이 혼이 죄의 몸에 붙어서 태어나기에 그들의 혼은 누구나 예외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몸만 사람의 모습이지 실상은 짐승들과 다름 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구속이란 말은, 혼을 지옥같은 감옥인 죄의 몸으로부터 끄집어 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도 Bail Bond 같은 몸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들의 혼이 죄의 몸에 의해 결박당한 채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 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죄악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혼을 구속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께 드리게 될 말씀에 대해 예언했던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도다."(히 10:6-7)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의 혼의 구속을 위한 속죄제물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율법에 의해 짐승들을 죽여 피흘리게 해서 사람의 혼의 몸 값을 바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의 혼을 죄의 몸으로부터 베어내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 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골 2:9-12)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의 언약 안에는 사람의 손에 칼을 잡고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어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사흘 정도 통증을 거친 후 회복하게 하셨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는 사람들의 혼의 구속을 위해 자신의 몸에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혼들을 죄의 몸으로부터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증거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벧전 1:8-9)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들의 혼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죄의 몸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든 사람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몸 값을 바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지도자들도 자신의 몸을 사람들의 혼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몸 값으로 바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실과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 2:1-4)

할렐루야! 아멘!